

# 東友

###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8년 7월 27일 금요일  
제224호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 권혜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인(출판국)
- 남형주(재정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애(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정기성(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성(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939)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동아미디어그룹의 근무방식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DAMG 업무 효율성 높이고 조직문화 바꾼다

### 동아미디어그룹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맞춰 업무문화 혁신 편집국 '5판 완성도' 높이고, 미디어 경영직 부서도 집중근무 체제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의 업무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주52시간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동아일보에 우선 적용된다. 주52시간제 시행을 계기로 동아미디어그룹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문화를 혁신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편집국 완성도 높은 5판 제작

동아일보 편집국은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5판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5판부터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면 기자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기사를 개고하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야근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취재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시스템도 개선했다. 사진부의 철야근무를 없앴

고, 오후 발제 및 회의도 간소화 했다. 타지 기사 리뷰도 자율적인 형식으로 바꿨다.

앞서 편집국은 올해 3월부터 기자들의 근무현황을 점검하고,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 기획면을 확대해 금요일 근무를 최소화했다. 앞으로는 주말 근무를 줄이기 위한 사전 기획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인력 충원을 위해 최근 경력기지도 뽑았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선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편집국은 심야에 카카오톡 등 각종 업무 관련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자제토록 했다. 또 설명이나 이유를 대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출판국은 신동아, 여성동아 등 월간지 제작을 할 때 마감 시간을 당겨서 주

말 근무를 최소화하고, 마감 기간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미디어 경영직 근무 방식 변화

미디어 경영직 부서들도 주52시간 시행에 맞춰 근무방식에 변화를 줬다.

AD본부는 아침 회의시간을 늦췄고, 마케팅본부는 정기적인 배달점검 등으로 야간근무를 할 때 다음 날 오후 출근을 하도록 조치했다. 외근이 잦은 문화사업본부나 미래전략연구소는 외부 행사로 인해 퇴근이 늦어진 경우 다음 날 출근 시간을 늦추고 있다. 워크숍, 부서 행사 등은 반드시 주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미디어 경영직 부서에선 업무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불필요한 연장, 야간근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실·본부장이 직접 부서를 돌면서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특정 시간 대엔 회의나 전화 응대를 하지 않고 온전히 업무에만 몰입해 효율성을 높이는 집중 근무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사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

기 위해 휴가 신청 시 사유와 목적지란을 없앴고, 대휴 신청 시 대휴사용에 대한 결재만으로 휴가 상신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대휴지정일에는 반드시 휴무를 할 수 있도록 2회(대휴지정일 일주일 전, 전 날) SMS로 알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채널A 제작 시스템 개선 추진

채널A는 이르면 2019년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제작 시스템을 바꾸고, 주5일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제작, 보도, 편성, 전략 기획, 경영지원 등 각 분야별로 현장 사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동아일보는 물론 다른 언론사들의 선행 경험을 분석해 채널A에 맞는 근무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동아닷컴 스포츠동아 등 DAMG 계열사들도 근로시간과 관련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도출되면 협의의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국 뉴스룸지원팀 정지영  
경영지원국 인사팀 윤신영

## 상반기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하트시그널 시즌2'

### 구글 TV프로그램 부문 검색 1위... 사이트 전체 순위서도 3위 연애예능 브랜드 조사에서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

채널A의 <하트시그널 시즌2>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을 가장 뜨겁게 달군 '핫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는 2018년 1월부터 6월 15일까지 한국 구글 사이트에서 지난해 하반기 대비 검색량이 증가한 검색어를 집계(모바일, PC 합산 기준)한 '2018년 상반기 한국 인기 검색어 순위'를 7월 2일 발표했다. <하트시그널 시즌2>는 TV 프로그램 인기 검색어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제 상황과 매력적인 출연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하트시그널 시즌2>는 한국 구글 사

이트 전체 검색어 순위에서도 3위를 차지했다. 인기 검색어 종합 순위 1위는 '미세먼지'였으며, 2위는 영화 '신과 함께'였다. 특히 <하트시그널 시즌2>는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케이블TV, 지상파를 망라하고 TV 프로그램 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MBC의 <나 혼자 산다>와 tvN의 <윤식당>가 종합 순위에서 각각 6위와 11위에 그쳐 <하트시그널 시즌2>와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단순한 웹 사이트 명과 일부 성인 검색어 등은 제외됐다.

또 <하트시그널 시즌2>는 한국소비자포럼이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2>의 일반인 출연진. 이들은 서로의 감정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로부터 연애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실시한 연애예능프로그램 부문 브랜드 조사에서 tvN <선다방>, SBS <로맨스 패키지>를 제치고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 선정됐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브랜드를 선정해 이를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실시된다.

<하트시그널 시즌2>는 3월부터 6월까지 15부작(스페셜편 2부 포함)으로 방송되면서 최고 시청률 2.7%(전국 유료방송 가입 가구 기준), 9주 연속 온라인 화제성 1위 등의 기록을 남겼다.

편집국 산업1부 신무경  
경영전략실 콘텐츠브랜드팀 손다혜

우리의 여름은  
새롭고 뜨겁습니다.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주52시간 근무제,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동아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 얼굴로 단장한 채널A 프로그램도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한여름 무더위 기세에 밀리지 않고 촬영에 한창인 드라마 '열두밤' 제작진들과 방학을 반납하고 취재 현장에서 뛰고 있는 DNA10기 인턴 38명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 東亞日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 채널A 새 드라마 '열두밤', 첫 방송 앞두고 스튜디오 촬영 한창

## 주연배우 '15초 티저' 공개 6년 만의 드라마 "흥행예감"

채널A의 새 드라마 <열두밤>이 첫 방송을 앞두고 촬영이 한창이다. <열두밤>은 세 번의 여행 동안 열두 번의 밤을 함께 보내는 두 남녀의 여행 로맨스다. 채널A 정현수 PD가 메인 연출을 맡은 채널A 자체 제작 드라마다.

### 고사 지내며 성공 기원

<열두밤>의 무사 촬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가 7월 8일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 큐브 세트장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세트 촬영에 앞서 안전하게 촬영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고사 현장에는 한승연, 신현수 등 주연배우들과 채널A 제작·연출 스태프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배우들은 차례로 나와 절을 하며 <열두밤>의 성공과 촬영 현장의 안전을 기원했다. 이어 촬영감독, 조명감독, 분장·미용·의상·소품 스태프와 드라마에 참여하는 채널A 제작·연출 스태프들도 차례로 절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정현수 PD가 축문을 태우자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고사는 마무리됐다.

극중 뉴욕 출신의 사진전공 대학생이자 현실주의자인 유경 역을 맡은 배우 한승연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다. 끝날 때까지 열정을 불태우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채널A 새 드라마 <열두밤> 출연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7월 8일 대전 스튜디오 큐브 <열두밤> 세트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①). <열두밤> 주연 배우 한승연(②)과 신현수(③)가 드라마의 무사 촬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있다.

하겠다"고 말했다.

재일교포 3세로 무용수의 꿈을 가지고 도쿄에서 서울로 온 청년 현우 역을 맡은 배우 신현수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열두밤>이 지나갈 것임으로 바란다. <열두밤>이 지났을 때 그 밤들이 행복하게 기억될 것 같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이라고 외쳐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 웰메이드 드라마 탄생 기대감 고조

<열두밤> 촬영이 본격화되면서 웰메이드 드라마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열두밤>에는 한승연과 신현수 두 주연배우 이외에도 장현성과 예수정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배우들이 가세해 방송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두밤> 제작진은 주요 출연진을 확정된 후 6월초부터 대본 리딩을 시작했다. 6월 17일 첫 촬영을 했으며 삼청동과 계동, 재동 등 북촌한옥마을 일대에서 야외 촬영이 이뤄지고 있다. 또 7월 2일 1박 2일간의 일본 촬영을 마쳤으며, 9월에는 뉴욕 촬영이 예정돼 있다.

<열두밤>은 7월 6일과 16일 각각 주연배우 한승연과 신현수가 등장한 15초 분량의 티저영상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흥행몰이에 나섰다. 페이스북(@tvcha.drama)과 인스타그램(@channela\_12nights) 티저페이지를 개설하며 방송 전까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작본부 제작1팀 송병수

# 채널A 보도-시사교양-예능부문 새 얼굴... "응원해주세요"

## '사건상황실' 김설혜·우정렬 진행, '뉴스A라이브' 송찬욱 기자 '돌직구쇼' 김진 기자 컴백... '외부자들'은 MC-패널 교체

### "사건 상황실에서 뵙겠습니다"

질은 어둠 속 풀리슬라인 내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증거품을 살펴보던 김설혜 기자, 우정렬 기자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진다. 사건 현장에서 바로 상황실로 이동해 사건을 해설해주는 콘셉트의 새 프로그램 <사건 상황실>이 막을 올렸다.

### 새로운 시도로 활력 불어넣는 새 얼굴들

7월 30일부터 평일 오후 1시 30분에 새로 편성되는 <사건 상황실>은 사건·사고 등 화재성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이다. 특히 현직 보도본부 사회부 데스크와 사건팀 기자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게 핵심이다. <종합뉴스> 등 방송 경험이 풍부한 김 기자가 진행을 리드하되 사건팀장 출신 우 기자는 항상 상황실을 지키는 우직한 참모 콘셉트로 사건사고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핵심 쟁점을 묻는 보조 앵커의 역할도 하게 된다.

실제로 사건 팀장(킷)과 팀원의 관계였던 우 기자와 김 기자는 "든든하다"(우 기자), "큰 의지가 된다"(김 기자)고 서로를 평가했다. 사건팀 때 맞췄던 호흡을 스튜디오에서도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건상황실>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생생한 토크를 하는 '씨리얼', 단신성 사건사고를 속도감 있게 전하는 '사건 바코드' 등의 코너로 구성돼 있다.

송찬욱 기자도 6월 18일부터 평일 오전 10시 50분 시작하는 <뉴스A 라이브>의 문을 열고 있다. 송 기자는 전상철 차장에게 바통을 넘겨받은 뒤 <뉴스A 라이브>의 속보대응과 현장 연결을 더욱 강화했다. 금요일에는 화제의 인물을 인터뷰하는 새 코너도 마련했다. '오전의 메인 뉴스'라는 별칭답게 "신속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치부 현장탐방에서 앵커로 변신한 송 기자는 "10년 가까이 방송 리포트를 만들고 출연을 해왔지만 앵커로는 아직 수습 기간"이라고 말했다. 성시은 기자와의 공동 진행 호흡도 잘 맞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 기자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가까이 <뉴스A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 6년간 방송환경 많이 달라져 새로운 에너지 불어넣을 것

평일 오전 9시 20분 조간신문으로 시사이슈를 꼼꼼히 짚어주는 <김진의 돌직구쇼> 터줏대감도 다시 돌아왔다. 올해 초 프랑스 연수를 마친 김진 기자가



새로 편성되는 채널A <사건 상황실>을 진행하는 김설혜 기자(왼쪽)와 우정렬 기자(①). <뉴스A라이브> 신임 앵커인 송찬욱 기자(오른쪽)와 성시은 기자(②). 김진 기자가 올해 초 프랑스 연수를 마치고 8개월 만에 <김진의 돌직구쇼>에 복귀했다(③). 박혜진 아나운서가 남희석에 이어 채널A 시사예능프로그램 <외부자들>의 새 MC를 맡았다(④).

개월 만에 복귀했다. 김 기자는 "공백이 있었던 만큼 어깨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6년 가까이 방송을 진행했지만 "그새 방송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매일 야외에서 진행되는 오프닝에 두 개의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트윈 스튜디오' 방식 등 끊임없

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 패널 교체로 한층 신선해진 <외부자들>

매주 화요일 밤 11시 방송되는 시사예능의 강자 <외부자들>도 5월 29일 방송부터 메인 MC를 전 지상파 아나운서 출신 박혜진 아나운서로 교체하며 프로그램의 무게감을 높였다.

고정 패널도 새로운 얼굴로 바뀌었다. 탁월한 언변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최강욱 변호사가 5월 29일 방송부터 출연하고 있다. 또 오랜 정치부 기자 생활을 거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5월 19일 방송부터 출연 중이다.

보도본부 뉴스노베이션팀 김경록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이기원

# 10기 맞는 DNA 인턴... 언론계의 '명품 인턴'으로 자리매김

### 올해 지원자 1100명 중 38명 선발... 두 달간 열정 쏟아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율 34.5% "선배들에게도 자극제"

연일 30도를 웃도는 7월과 8월,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여름을 보내는 38명의 청년들이 있다.

취재와 촬영은 물론 기획 회의와 기사 작성, 영상 편집 등 동아일보와 채널A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는 DNA 인턴들이다. 인턴들은 7월 4일부터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상암동아디지탈미디어센터(DDMC)를 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진짜 후배를 찾겠다는 '매의 눈'

신문기자과 방송기자, PD를 아우르는 명품 인턴십 프로그램 DNA 인턴제도는 올해 10기를 맞았다. 2004년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시작한 동아일보의 인턴제도를 2012년부터 채널A로 확대해 실시한 지 6년 만이다.

2015년에는 선배 기자·PD의 관찰평가 및 수습 공채에 준하는 실무평가와 면접을 통해 △활동 종료 후 즉시 채용하거나 △수습 공채에서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패스트트랙을 부여하는 채용연계 방식을 도입했다. 수습 공채와 시기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겨울 인턴은 없었다.

인턴 제도에 채용을 연계하니 과정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무 교육 수준이 올라갔다. 제대로 훈련받아 동아의 가족이 되겠다는 지원자들의 단단한 각오와 함께 일할 '진짜 후배'를 찾겠다는 선배들의 매의 눈이 만나 동반 상승효과를 낸 것이다. 지난 3년간 채용연계형 DNA

인턴을 거친 인원은 113명. 이 가운데 채용으로 이어진 경우는 동아미디어그룹 채용연계율이 34.5%(39명)이다. 다른 언론사에 입사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60.1%(68명)에 달한다.

#### 1100명이 훌쩍 넘는 지원자

이번 10기 DNA 인턴에 대한 관심은 유난히 뜨거웠다. △현장 기자·PD와의 1대1 매칭으로 미디어 업계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고 △활동 자체가 채용과 연계되며 △떨어지더라도 평가자 전원에게 피드백을 해 주는 점 등 DNA 인턴의 강점이 널리 알려져서다. 1100명이 훌쩍 넘는 지원자가 몰려 필기시험과 면접 등 선발 과정의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도시어부> <하트시그널 시즌2> 등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작본부의 인턴 PD들은 31.5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인턴 제도에 채용을 연계하니 과정 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무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



인턴들의 열정은 선배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있다. 인턴 PD들은 장시간 지속되는 스튜디오 녹화와 야외 촬영도 거뜬히



신문기자과 방송기자, PD를 아우르는 명품 인턴십 프로그램인 DNA 인턴제도는 올해로 10기를 맞았다. 10기 DNA 인턴들이 사진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해냈다. 영상 편집실에서는 선배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받아 적다가 "혹시 설명하는 걸 녹음해도 되냐"고 묻기도 했다. 서민지 제작본부 제작4팀 PD는 "인턴들이 평소 프로그램 모니터링한 소감을 말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 채널A에 대해 애정이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 인턴 종료 후 채용 전환 여부 결정

인턴 기자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 선배들

과 함께 취재를 하기도 하고 인터뷰이 섭외에도 나섰다.

기사 거리를 찾으면 이를 어떻게 기사로 발전시킬지 고민하면서 발제를 만들어 선배 기자들에게 지도를 받았다.

구특교 편집국 사회부 기자는 "질문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처음 기자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조현선 보도본부 경제부 기자는 "피드백을 받으면 적극 반영하는 모습을 보니 더 잘 가르쳐

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7월 24일까지 전반기 활동을 마친 DNA 10기 인턴들은 26일부터 새로운 부·팀에 배치돼 하반기 활동을 시작했다. DNA 10기 인턴 활동 기간은 8월 10일까지며, 이후엔 공채 평가와 같은 수준의 시험과 면접을 거쳐 채용 전환 여부가 가려진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 때쯤, 동아는 또 새로운 가족을 맞게 된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강은지

## 다채로운 삶의 지혜 만난 '7인7색 무지개 강연'

### 제1회 'K-라이프 트렌드쇼', 자존감키우기 등 7가지 주제강연 눈길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2018~2019 K-라이프 트렌드쇼'가 7월 11~12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행사 이틀간 1500여 명이 다녀갔을 만큼 흥행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부스 100여 개 크기의 전시장은 테크(Tech), 라이프(Life), 컬처(Culture) 등 3가지 소주제에 맞춰 구성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수소차, 가상현실(VR) 등 최첨단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관람객들은 IoT 기술을 적용한 호신용

품을 비롯해 미래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과 수소전기차 등 최첨단 라이프스타일 트렌드와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직접 볼 수 있었다. VR체험존을 방문한 관람객들은 헤드셋을 끼고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과 비무장지대(DMZ)를 360도로 촬영한 영상을 현실감 있게 볼 수 있었다.

유행하는 라이프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제품들도 다수 소개됐다. 식품업체들은 최근 급성장 중인 가정간편식(HMR) 관련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또 애완동물을 가족같이 키우는 '펫팜(Pet+Family)족'을 겨냥한 반려동물 전용 제품도 전시됐다. 여행업체들이 다양한 연령대의 취향을 고려한 여행상품을 직접 상담해주는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별도로 설치된 강연장에서는 트렌드 주제 강의가 열렸다. '2019년 트렌드'를 주제로 한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의 강의를 시작으로 이틀간 의(衣), 식(食) 주(住), 애(愛), 행(行), 신(身), 심(心) 등을 키워드로 한 강연들이 이어졌다. 개성 넘치는 강의에 청중이 몰려들면서 빈 좌석을 찾기 힘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편집국 산업2부 엄희진



7월 11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에서 열린 '2018-2019 K-라이프 트렌드쇼'에서 요가·필라테스 강사들이 요가 시범을 보이고 있다.

## 디지털 '저널리스트 페이지' 문 열어

### '동아일보-채널A, 각각의 장점 흡수' 차별화 콘텐츠 기대



'동아 저널리스트' 페이지 첫 화면.

7월 2일 동아일보와 채널A 홈페이지에 '기자 페이지'가 나란히 문을 열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려는 열망을 가진 기자들에게 새로운 창구가 생겼다. 동아닷컴과 채널A의 웹 사이트와 모바일 메인 화면에 각각 '동아 저널리스트'와 '채널A 저널리스트' 페이지가 첫 선을 보였다.

기자페이지에는 현업에서 생산하는 기사와 리포트가 쌓이지만 '디지털 스페셜'이라는 개인 특화 코너도 있다. 현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콘텐츠를 동아닷컴과 채널A 홈페이지를 통해 포털로 송고할 수 있다.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바뀌더라도 꼭 쓰고 싶은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셈이다.

지면이나 방송으로 다 담지 못했던 깊이 있는 콘텐츠도 대환영이다. 채널A 기자페이지에는 '취재현장 특' 코너가 있어 방송 제작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 등을 글로 표현해 올릴 수 있다. 신문은 방송의 장점을, 방송은 신문의 장점을 흡수하자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멋진 기사를 쓰는 기자를 좀 더 알고 대화하고 싶다'는 독자와 시청자들을 위해 모든 페이지에 기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동영상과 취재현장 사진, 자랑하고 싶은 인생 기사 등을 담도록 했다. 멋진 자기소개와 생방향 질의응답 코너도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신문과 방송에서 각 10명(총 20명)이 일종의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앞으로 신문기사와 방송리포트 외에 자기만의 '개인 특화 코너'로 디지털 모바일 공간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기자들의 페이지를 계속 열어 나갈 계획이다. 원하는 기자들은 어떤 주제로 얼마나 자주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정리해 편집국과 보도본부 디지털뉴스팀으로 보내면 된다.

편집국 디지털뉴스팀 황규인

# 채널A 경력 입사자

##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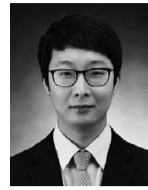
### 이름 / 부서

- ① 출생연도
- ② 최종 직장/학교
- ③ 입사 후 포부
- ④ 요즘 관심사



**김시현 / 채널A**  
경영전략실 IP법무팀

- ① 1991년
- ② 대교
- ③ 저작권 관리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경력직 입사지만 신입의 마음으로 돌아가 많은 분들께 배우며 동아미디그룹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④ 얼마 전부터 자제 교정의 목적으로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초보 수련생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연마하려 합니다.



**박희운 / 채널A**  
경영전략실 콘텐츠사업팀

- ① 1984년
- ② GS홈쇼핑
- ③ 우아한 장사꾼이 되고 싶습니다. 채널A에 걸맞은 품위 있는 커머스 전문가로 성장해 채널A의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 ④ 국내에 아직 수입되지 않은 다양한 브랜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브랜드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이정 / 채널A**  
편성본부 콘텐츠편성전략팀

- ① 1985년
- ② TV조선
- ③ 저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이런 호기심과 열정으로 채널A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것입니다.
- ④ 문득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아이스하키 카드들을 보다 실제로 동호회까지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안주영 / 채널A**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 ① 1986년
- ② 프레인글로벌
- ③ 앞으로 채널A와 함께 할 기대감으로 가슴이 뻥뻥 뜨거운 설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 ④ 여름이 다가온 만큼 다이어트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최근에는 주 2회 집 앞 호수공원에 나가 조깅을 하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좋은 다이어트 팁 공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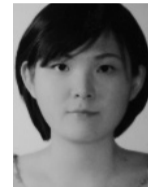
**마태희 / 채널A**  
제작본부 제작1팀

- ① 1981년
- ② 몬스터유니온(슈츠, 7일의 왕비)
- ③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콘텐츠 시장에서 드라마 콘텐츠를 뒤처지지 않는 참신한 기획을 하고 싶습니다.
- ④ 최근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드라마 제작 현장 모니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수호 / 채널A**  
제작본부 제작2팀

- ① 1980년
- ② CJ E&M(한식대첩, 달팽이호텔)
- ③ 채널A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 프로그램을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후훗.
- ④ 게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송, 영화보다도 우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영감을 얻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노는게 아닙니다. 후훗).



**배성희 / 채널A**  
제작본부 제작4팀

- ① 1984년
- ② 몬스터유니온(김생민의 영수증)
- ③ 누가 봐도 즐길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되겠습니다. PD로서의 제 꿈을 채널A에서 펼치겠습니다.
- ④ 옥수수를 심어서 가꾸고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민찬 /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

- ① 1985년
- ② 아시아경제
- ③ 기자가 됐을 때 초심은 언제나 현장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뛰었습니다.
- ④ 부쩍 타이트해진 바지를 보며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신선미 / 채널A**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인천취재본부

- ① 1988년
- ② 경인일보
- ③ 채널A와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선배들과 동료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④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신랑에게 어떤 선물을 사달라고 말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윤정 / 채널A**  
보도본부 국제부

- ① 1988년
- ② 뉴스1
- ③ 신뢰받는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보고 싶은 뉴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뉴스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채널A와 함께 만들겠습니다.
- ④ 6개월 된 아기 고양이와 재미있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기 고양이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이승준 / 채널A**  
전략기획본부 프로그램제작팀


- ① 1987년
- ②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 ③ 멋지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냉정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마음과 결단력으로 색다르고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 ④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족이랑 함께 영화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는 영화 시간이 참 좋습니다.




###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인삼 에센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탈모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이번 <동우는 몸신>에서는 탈모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인삼 에센스'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인삼은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인삼 50g, 물 500ml, 레몬 1/2개, 글리세린 1g을 준비합니다. 물 500ml에 인삼 50g을 넣고 끓여줍니다. 그 다음 인삼을 우린 물에 레몬 1/2개 즙을 넣고, 글리세린 1g을 넣은 후 잘 섞어줍니다. 완성된 에센스를 스포이드가 있는 용기에 담아 2-3방울씩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발라주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tv.ichannela.com/enter/bodygod/concept)를 통해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인삼 50g, 물 500ml, 레몬 1/2개, 글리세린 1g을 준비합니다.



② 물 500ml에 인삼 50g을 넣고 끓여줍니다.



③ 인삼 우린 물에 레몬 1/2개의 즙을 넣고, 글리세린 1g을 넣은 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④ 스포이드가 있는 용기에 담아 2-3방울씩 두피, 모발 구석구석 발라줍니다.

## 채널A플러스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우뚝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 '채널A플러스'가 7월 1일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채널A플러스는 '즐거움을 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청자에게 다양한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동아미디그룹의 서브채널이다. 채널A플러스는 출범 3주년을 맞아 본사 프로그램 출연자인 박시연, 김새롬, 오정태 등의 축하 메시지를 편집한 영상물 2개를 제작하며 자축했다.

채널A플러스는 그동안 빠르게 자리를 잡으며 종합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성장했다. 2017년 5월 전 유료방송 플랫폼에 모두 입점하며 전국 2300만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청자들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채널A플러스의 연애·오락·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하반기에는 채널A플러스 단독으로 춘천컵 프로 볼링대회를 중계하며 방송 역량을 뽐냈다.

또 올해부터는 채널A플러스가 퓨처스 리그(프로야구 2군) 서머리그 '월요일 경기' 중계를 시작했다. 서머리그는 퓨처스 리그 선수들의 체력 보호 및 야간경기 적응을 위한 제도로, 중계는 정지원 채널A 캐스터(사업전략팀장)와 한만정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맡았다.

앞으로 채널A플러스는 2049 시청자 층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형식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오리지널 프로그램 <수상한 인력소>, <박시연의 멋 좀 아는 언니> 등을 론칭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여세를 몰아 하반기에도 신규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채널A플러스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전략기획본부 채널A플러스팀 김형구



채널A플러스의 오리지널 프로그램 <수상한 인력소> 출연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